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 이종윤 원로목사

종에게 무슨 명제가 있습니까. 종은 이름도 없습니다. 부리기 위해서 바위라든가 공쇠놈 같은 별명이 있을 뿐 이름이 없으니 명함이 있을 리 없습니다. 남이 알아주면 은혜요 알아주지 않아도 고마울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에게 내 것이 없으니 스스로 이룬 것은 더더욱 없습니다. 나 자신이 주의 소유물인데 내게 무슨 소유권이 있으며 등기부에 올릴 이름 석자가 없는 주제에 내 소유 내가 한 일이란 가당치 않은 말입니다. 시간도 심지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종에게 고난은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려고 할 때입니다. 앉지 않아야 할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건디기 어려운 시련이 옵니다. 매를 맞고 누명을 쓰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손발이 절단되고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종입니다. 종에게 무슨 인권이 있고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겠습니까. 천부당만부당한 말입니다.

종은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주인에게 따지거나 제 의견을 앞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발 갈고 양을 치고 돌아와서는 주인의 식탁을 준비하고 그가 먹고 마시는 것을 시중들어야 합니다. 일하려면 하는 것이고 밤을 새우려면 새우는 것뿐이지 거기에 거절이나 불평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듀로스)이라고 불렸습니다. 헬라어로 듀로스는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는 주인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주인의 뜻을 이루고 주인을 기쁘게 할 뿐입니다. 거자씨만한 순수하고 생명력 있는 믿음은 이같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노예에게는 지혜도 능력도 없습니다. 주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요 그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무익한 종에게 보상이도 없습니다. 무엇을 이룬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켰다 해도 모두 주님께서 하신 것뿐입니다. 나는 그 분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을 감지덕지 할 뿐입니다. 보상이 없다면 알아서라도 주셔야 할 터인데 종에게 그런 보상심리는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종은 무엇을 소유해서도 보상을 기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길 뿐입니다.

종에게 상대적 감사나 순종이 아니라 절대 감사, 절대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힘들다고 불평하거나 원망은 없습니다. 받았으니 감사가 아니라 없어도 빼앗기고도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 뜻대로 일이 안 되고 남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섭섭히 생각하고 뒤로 물러서는 이는 주님의 종이 아닙니다. 내 맘대로 안 되고 남의 인정 없어도 주님 명령에 순종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칠 만큼 수고를 하고도 한 것이 없다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리적 사고를 하는 서양인들에게 이해가 어려운 표현입니다. 어찌 보면 정직하지 못한 지나친 겸양이라 할 지 모르나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이에겐 어떤 일이 닥쳐와도 불평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부족하고 주고도 부족하고 오히려 죄송해 하는 마음 그것이 무익한 종의 자세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마음과도 같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이는 남을 실족케 안 할 것이며 다른 형제의 과실을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9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에도 다락방장/교구 간사를 통하여 사전 신청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교회에서의 대면예배가 진행되고, 본당 예배 인원이 초과될 경우 웨민홀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찬양예배, 새벽예배, 수요일예배도 대면예배로 드리며, 교회학교는 이전처럼 비대면예배로 드립니다.

지난 주일 공동의회에서 손달익 담임목사 위임 청빙 투표가 통과되어 교회는 설립 30주년과 함께 힘찬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에도 감사드립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10912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	---	---

부 목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안용곤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교육전도사 허은 이대원 정기성 김예지 선교사 권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병연·김희경,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사, 비스타파, 사지, 예복(인도), 스브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또,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롱,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상진·홍성임(말라위), 이재을·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전임목사 조동수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	------------------------------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h1>서울교회</h1>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종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손달익 Rev. Son , Dal-ig

“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

■ 전 11:9-12:2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성취와 명제가 후대들에게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우리 인생은 금세 잊혀질 것입니다. 인간의 일생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전 1:2) 짙은 허무가 가득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할 것인지, 전도서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1. 현실을 직시하라

전도서의 기자는 세상 그 누구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의 부조리한 현실로 인해 짙은 허무를 느낍니다.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 불공정과 사욕과 뇌물이 횡행하는 것을 보고 탄식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세상 어디에도 악이 무성하다’는 아픈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현실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2. 도피하지 말라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가 무엇이었습니까?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포자기와 허무주의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어진 삶의 길을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야 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도피하지 말고 도전하고 또 시도하면서 양심과 말씀의 명령을 따라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한 세상에 도전하는 당찬 자세야말로 전도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삶입니다.

3.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 이전의 세상은 공허했습니다. 존재도 없고 의미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자 온 세계가 충만한 생명의 세계로 바뀌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과 생명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목적 있는 창조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고유하고 숭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생을 마쳐야 할 그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뜻을 실천합시다.

인생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나 도피하지 말고 허무에 젖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온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짙은 허무를 이겨내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서명철 목사	최광성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장석남 목사	이계홍 장로
III 오후 2시	조원영 목사	조원영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시 48:1-2...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6(8)... 다 합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합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54(시 126)... 다 합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합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68(32)... 다 합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전 11:9-12:2...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합 께
 봉 헌 Offering 다 합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합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합 께
 설 교 Sermon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354(394)... 다 합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합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전재홍 목사, 설교: 손달익 목사
 목 도 다 합 께
 성 시 시 100:1-2 인 도 자
 찬 송 67(31) 다 합 께
 기 도 김광민 집사
 성 경 행 3:1-10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 설 교 자
 * 찬 송 421(210) 다 합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합 께
 I부 오전 11시 ·인도: 조원영 목사
 II부 오후 7시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I부: 김희순 권사 II부: 김정제 권사
 성 경 행 3:11-26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새롭게 되는 날이 옵니다” ... 설 교 자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 김양언 · 박수강 · 김복희2
 설 교 손달익, 전재홍 목사

수요일예배

새벽기도회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웨스트민스터 홀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알 림

-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501호 예배 및 부서 예배**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601호 부서 예배**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2호 부서 예배**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세례 문답교육 : 주일 오후 1시-1시30분
 - 603호 부서 예배**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부서 예배**
세례 문답식 : 주일 오후 1시30분-3시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2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장 례**
- 故 박한옥 피택권사(9교구 송인수 집사의 부인) / 9월6일(월) 별세, 8일(수) 천국환송예배**
 - 故 이영의 집사(13교구 김영식 권사의 모친, 조정식 장로의 장모) / 9월8일(수) 별세, 10일(금) 천국환송예배**
 - 故 박영임 권사(5교구 전미경 집사의 모친, 김승록 집사의 장모) / 9월9일(목) 별세, 11일(토) 발인**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 **중고시설에 대한 변경된 방역수칙에 따른 예배 안내 (8.9.부터 지침 변경 시까지)**
- 주일 1,2,3부, 찬양예배, - 대면, 실시간 생중계
 - 수요1부 예배 - 대면, 실시간 중계
수요2부 예배 - 대면, 수요 1부 예배 녹화 방송
 - 새벽기도회 - 대면, 실시간 중계
- 따라서 수요 2부 예배를 제외한 모든 실시간 중계예배는 각 해당 시간에 드리시면 됩니다.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새벽기도
1,641명	452명	2,093명	457명	2,295명

편견과 무지

인간 사회에서 진위를 구분하고 선악을 판단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확신과 신념을 갖고 주장하며 따르던 일들이 상황의 변화와 더불어 삽시간에 그 평가가 바뀌는 경우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흔들리는 세상의 가치관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자신의 무지와 편견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잘못 판단케 하고 남에게 오해와 무거운 짐까지 지우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갖고 있던 다소의 사울은 그를 따르는 이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골고다 산상에 높이 세워진 십자가도 역사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들의 무지와 편견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나의 좁은 소견과 편견, 그리고 부분적으로 아는 지식과 무지로 인해 하나님의 진리가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도록 하자.

-이종윤 원로목사 신약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합심시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오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경	정혜은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전지희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블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마 21:43)	금주의 성구	
영어예배	예루살렘							
수요 I 부	호산나	구민영	안효주	홍혜란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